

# 광주 복구, 방역중점관리지역 지정

### 코로나19 지역감염 388명 중 212명 복구 거주 인력·예산 등 집중·긴급의료지원단 우선 투입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복구지역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있어 방역당국이 복구를 방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역감염이 줄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많은 복구를 방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 439명 중 해외유입 47명과 타 시도 확진자 4명을 제외하면 지역감염자는 388명이다.

이 중 복구 거주자가 212명으로 전체 5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서구 60명(15.5%), 광산구 46명(11.9%), 남구 37명(9.5%), 동구 33명(8.5%) 순이다.

복구는 인구가 광주 전체 인구의 29.8%이지만 확진자 수는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림침례교회(56명), 광주사랑교회(41명), 일곡중앙교회(30명), 동광주탁구클럽(15명), 배드민턴동호회(14명) 모두 복구에 소재하고 있다.

8·15 서울도심집회에 참가했던 확진자 22명 중 10명도 복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복구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말바우시장 국밥집 확진자가 16명에 달하고, 인근 중흥기원(7명)과 동광주탁구클럽(15명)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 복구의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예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인 복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 등 방역역량을 복구에 집중하고, 최근 모집한 긴급의료지원단도 복구에 우선 투입한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말바우시장 주변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중점관리시설도 그동안

확진자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 실증적 분석을 거쳐 집중 관리키로 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오는 9일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지정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 동구, 마을활동가 비대면 '영상크리에이터' 교육

광주 동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영상크리에이터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방법을 4차례에 걸쳐 알려준다. 지난달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화상회의 시스템인 'ZOOM(줌)'을 통해 진행되는 100%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영상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은 △1강 촬영 전문용어 습득과 사진을 활용한 간단한 영상 만들기 실습 △2강 주제에 적합한 촬영 팀 △3강 촬영물의 효과적 편집 △4강 편집된 최종영상 유튜브로 송출하기 등이다.

### 서구, 무인시스템 스마트도서관 큰 호응

광주 서구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무인시스템 스마트 도서관이 빛을 발하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임시휴관 되면서 비대면으로 24시간 연중무휴 도서 대출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이용문의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 도서관 개관 1년 즈음해서 이용성과를 살펴보면, 스마트도서관 기기대출과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책배달 서비스로 이용한 대여도서는 총 6,885권으로 하루 평균 31권의 도서가 대출됐다.

특히, 광주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책배달서비스는 구립도서관에 소장된 책도 대출신청하면 빌려보고 반납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 남구, '서석대 형상·무장애 기능' 정류장 손본다

광주 남구는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테마 시내버스 정류장 조성을 통해 광주다운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석달간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12곳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주의 정체성을 형상화한 광주다운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다. 광주다운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는 곳은 광주대 앞을 비롯해 광주향교 등 7곳이다.

### 복구, 구민의 날 기념 'SNS 퀴즈 이벤트' 실시

광주 복구는 복구민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제1회 복구민의 날(9월 26일)을 적극 알리고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9월 중 '복구민의 날'을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퀴즈 이벤트가 실시된다.

먼저 9일부터 15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초성 퀴즈인 "너 이름이 뭐니?"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카카오톡에서 '광주복구'를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고 다섯 개의 초성에 해당하는 단어와 복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숫자 퀴즈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이 진행되며 각 문제에 들어갈 숫자의 정답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된다.

### 광산경제백신회의, 소상공인 업체 냉방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를 지원한다.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 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산경제 활력 특강 등 9개의 '광산백신 시리즈' 사업을 해온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시리즈 10탄으로 냉방비 지원사업을 기획한 것.

냉방비는 일반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20kw이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계약을 한 등록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고, 업소 당 최고 1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10월 중 납기일에 고지되는 한전 전기료 금액에서 자동 상계처리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밖에 냉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062-945-6688)에서 한다.

임형택기자

## 비대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전남도, '스마트 음식관광' 시대 연다

### 도내 음식점 3000개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전남도가 맛의 고장 남도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하는 '스마트 음식관광' 서비스에 나선다.

전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음식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 데이터 기업을 매칭해 데이터 구축·가공 등 예산을 지원하

고, 완료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도내 음식점 3000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954개소와 시군 추천 3501개소 중 99㎡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다. 다만 위생점검 등으로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제외한다.

사업은 주로 메뉴와 가격, 내·외부 사진, 주변 관광지 정보와 위치, 휴일, 영업 시간 등 음식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된다.

구축된 자료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관광객, 소비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내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다.

전남도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비대면 예약과 주문, 결제 서비스까지 가능토록 사업을 확대해 스마트 음식관광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은 이동하면서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골라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환중

안전하면서도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약과 동시에 결제까지 이뤄지므로 음식점은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소위 '식당 노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전남만의 차별화된 음식관광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으로 예약부터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음식관광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광주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10월 착공

#### 사업비 100억원 투입...지하1층·지상2층 규모

광주시는 광산구 평동산단단지 옥동근린2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개방형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동근린2공원 내에 있던 축구장을 확대 정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개방형 체육관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1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규모는 연면적 2471㎡(지하1층, 지

상 2층)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1층에는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2층에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체육관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평동지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체육관 1층 수영장 내 부스형 사우나를 설치하고, 체형형 수영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협의했다.

평동산단 체육관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임주기업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체육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른 평동산단은 산업단지 확장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이 미비해 주민 불편이 컸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성의 안전

▶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엄벌해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리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아예넛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50위   고소득층   40위   30위   20위   저소득층   10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